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미래

이 영 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대학의 위기는 대학진학 인구의 감소가 가져온 위기 외에도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학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와 참여를 통한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I. 서 론

대학의 3대 기능은 학문탐구,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사회봉사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대학 설립의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대학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해왔다. 더욱이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학의 교육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교육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짧은 기간 동안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룩한 양적 성장은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질 관리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미국, 캐나다 등과 더불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보편화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양적성장을 가능

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은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다만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엔 "속칭 일류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정도의 인식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대학의 설립과 운영은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투자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대학진학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대학경영을 압박하는 대학 위기의 요인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즉,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입학정원을 확보하지 못

하는 미충원 사태가 빚어지면서 그 위기의 심각성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 학생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은 심각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고등교육전문가들이 대학 진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미충원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03년도 미충원율이 9.3%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이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즉, 인구구조라는 환경적 변화가 가져온 미충원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다가는 '뜨거운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하다가 온 몸이 화상을 입는 것'처럼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장래 대학진학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어떠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 인구구조의 변화

200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2013년 5천만 명을 돌파하여 2030년에 인구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성장률은 2000년 0.71% 증가에서 2022년 0%에 도달한 후 2030년에 -0.24%, 2050년 -1.04%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 세계 26위, 2050년 세계 37위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대 인구 조밀국가이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는 유년인구는 감소를 보이고 노년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0~14세 유년인구

〈표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천 명, %)

연 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총 인 구	47,008	49,594	50,650	50,296	48,204	44,337
인구성장률	0.71	0.38	-0.04	-0.24	-0.64	-1.04

* 자료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결과

〈표 2〉 학령인구 변화 추계

(단위 : 천 명)

연 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초등(6~11)	4,073	3,465	2,915	2,501	2,262	1,900
중학(11~14)	1,869	1,980	1,533	1,274	1,213	1,014
고등(15~18)	2,166	2,102	1,533	1,359	1,232	1,062
대학(18~21)	3,278	2,593	2,336	1,947	1,637	1,511
전체(6~21)	11,383	10,141	8,374	7,081	6,344	5,487

* 자료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는 2000년 현재 21.1%를 보이고 있으나 출산을 감소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00년 현재 7.2%에서 2019년에는 14%, 2026년 20.0%를 상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유년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총인구의 24.2%인 11,383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총인구의 14.1%인 708만 1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Ⅲ. 4년제 대학진학자 수 시계열 추계

2004년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인 18세 인구는 66만 3천 명(실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 579,353명)이고, 이들이 입학하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74만 4천 명(4년제대학 394,379명, 전문대학 349,323명)으로 18세 인구에 비해서는 8만 1천 명이 많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에 비해서는 16만 5천 명이 많은 입학정원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들이 대학진학자의 감소의 심각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계속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에 4년제 대학들은 학생정원의 30% 정도를 못 채우고 있는 대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체 대학진학자 수가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만약 4년제 대학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98~2003년의 연도별 수능응시자의 재학생과 졸업생(기타 검정고시 등 포함) 구성비를 살펴보면 대체로 75:25 내지 70:30 정도이다. 따라서 수능응시자의 최소한 25~30%는 재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을 선

호한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의 전문대학 진학자를 고려할 때 수능응시자의 20~25%는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학생과 전문대학 진학자 수를 제외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의 최대치는 연도별 수능응시자의 55%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

이미 수년 전부터 고등교육전문가들이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미충원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인구구조라는 환경적 변화가 가져온 미충원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기준을 적용해서 4년제 대학진학자 수를 추계하고, 향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39만 4천 명(394,379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부족인원을 추계하면 <표 3>과 같다.

향후 4년제 대학 진학자 수에 대한 시계열 추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의 학생충원이 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수능응시자 대비 대학입학자추계로 본 미충원인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21만 명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현재기준 수능응시자의 53%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불

〈표 3〉 4년제 대학진학자수 시계열 추계

(단위 : 명)

연 도	고등학교 졸업자(18세 인구)			수능응시자	대입입학자	초과/미충원
	남	여	계			
2003	309,315	281,668	590,983	654,809	349,668	-34,358
2004	303,537	275,816	579,353	641,923	342,787	-52,916
2005	312,395	282,015	594,410	658,606	351,696	-42,683
2006	319,463	286,153	605,616	671,023	358,326	-36,048
2007	331,409	293,596	625,005	692,506	369,798	-24,576
2008	329,812	294,208	624,020	691,414	369,215	-25,159
2009	363,929	327,880	691,809	766,524	409,324	14,950
2010	375,050	333,187	708,237	784,727	419,044	24,670
2011	370,858	324,558	695,416	770,521	411,458	17,084
2012	367,428	321,692	689,120	763,545	407,733	13,359
2013	364,625	325,737	690,362	764,921	408,468	14,094
2014	350,472	315,351	665,823	737,732	393,949	-425
2015	346,160	310,221	656,381	727,270	388,362	-6,012
2016	326,590	299,889	626,479	694,139	370,670	-23,704
2017	321,581	286,651	608,232	673,921	359,874	-34,500
2018	314,873	286,052	600,925	665,825	355,550	-38,824
2019	304,228	260,840	565,068	626,095	334,335	-60,039
2020	286,336	260,800	547,136	606,227	323,725	-70,649
2025	262,104	243,158	505,262	559,830	298,949	-95,425
2030	246,602	229,153	475,755	527,137	281,491	-112,883
2035	216,318	203,215	419,533	464,843	248,226	-146,148
2040	210,937	198,770	409,707	453,955	242,412	-151,962
2045	206,264	194,539	400,803	444,090	237,144	-157,230
2050	188,788	178,045	366,833	406,451	217,045	-177,329

* 각 학년도별 고등학교 졸업자는 2003~2015학년도는 2003년 교육통계연보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로 하였으며, 2016~205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통계청의 2001년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인구로 산정함

** 수능응시자 추계는 기준년도 2003학년도 수능응시자 654,809 대비 2003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590,983의 비율 1.108을 각 학년도별 고등학교 졸업자에 곱하여 추계함

*** 대학입학자 수는 수능응시자의 약 53%가 진학하는 것으로 산정함(전문대학 진학 및 재수생 47% 추정)

**** 2003학년도 대학입학정원 384,026명, 2004학년도 대학입학정원 395,703명, 200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394,379 명으로 산정하였으며, 2006학년도 이후는 2005학년도 대입정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때 약 40만 명선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그후 급격하게 대학에 지원할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려 23만 4천 명의 미충원인원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1만 9천 명의 미충원인원이 누적되며, 2027년 이후는 미충원인원이 매년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산술적 단순 계산을 하면 2020년 기준으로 누적되는 미충원인원 23만 4천 명으로 환산할 때, 1만 명 규모 대학(총학생 1만 명 규모 대학) 23개 정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2000년의 18~21세 인구 327만 8천 명이 2030년에는 현재의 59.3%인 194만 7천 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에 그 46.1%인 151만 1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때 해당 연령의 모든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재학한다는 것을 가정한다하여도 2030년에는 119개 대학, 2050년에는 92개 대학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변인만 고려한다하여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 대학 40% 이상, 205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혁명의 거대한 사회변동의 요인을 고려하여 드러커가 전망한 2050년대에 현재 미국의 3,000개 대학이 그 10% 수준 300개 대학으로 줄어들 것을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2050년대 우리나라 대학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IV. 결론

인류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들이 직면했던 위기로부터 받은 충격은 그 자체가 학습이었다. 즉,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다. 자연의 천재지변이 가져온 심각한 충격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자연 현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난 300여 년 동안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인류의 어떤 조상들도 누리지 못했던 편리한 문명생활의 급진전을 가져왔다.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충격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대학진학 인구의 감소가 가져온 위기 외에도 과거와는 다른 대학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이 치중해 온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학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와 참여를 통한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 인구감소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론 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인들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가 소속한 대학의 주인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대학의 구조조정에 임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전통을 다져온 우리나라 대학들도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버금가는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대학, 대학

다운 대학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과거 대학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사학 의존도가 높았으나, 대학들이 그 동안의 공과를 내세워 학생감소 시대의 부족한 재정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자 하며, 대변혁의 시대에 스스로의 탈바꿈을 게을리 한다면 그 공과를 따지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학경영 마인드가 있고, 수원이 좋은 총장이 수십 억의 기부금을 한두 번 유치해 온다고 해서 사학재단이 매년 제공하는 전입금만으로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학생감소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둘째, 학내 구성원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참여하여 구조조정의 모델을 만들고 특성화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설·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정원은 대학의 교직원의 수와 시설확보의 준거가 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며 대학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과거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대학들이 모집한 학생정원에 걸맞는 대학교육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단적으로 국·공립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8명이고, 사립대학은 3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5명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은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개설학과나 학과별 교육과정은 타대학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이다. 특성화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학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신입교수 채용과 시설투자를 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현상유지 전략 내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이 있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소극적 대처는 학생정원 미확보, 대학재정 감소, 교수충원 및 시설·환경 미비, 대학교육에 대한 사

회적 평가 절하, 미충원 학생의 누적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상태에 빠진 대학은 생각보다 빨리 어려워질 수 있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생감소는 초기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OECD 국가의 평균 교수확보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수를 확보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학생들의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대학에서 학생정원은 대학의 교직원의 수와 시설확보의 준거가 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며 대학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은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개설학과나 학과별 교육과정은 타대학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교수확보율을 충족시키고, 교육과정을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학생들의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 없이는 어떤 대학도 학생감소 시대의 위기 극복은 어려울 것이다.

리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어떤 대학도 학생감 소시대의 위기 극복은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학들은 학교 캠퍼스 과정 내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갖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선도자가 됨으로써 부족한 학생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들이 이러한 평생교육사업에 주력할 경우, 대학의 사회봉사기능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얻어 낼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선 그 하나는 대학의 이미지 제고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시급한 대학 입학 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는 지역대학의 시급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의 입학 자원 확보를 위해 보다 주력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을 대학의 생존 및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들은 더 이상 문화센터에서든 사회복지회관에서 배울 수 있는 교양위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과감히 벗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직업 획득과 전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직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평생학습사업은 대학이 명실공히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되어 대학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사업을 계기로 대학은 산학협동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재정지원 등 대학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마련하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창학정신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가운데 내실을 다지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만이 오늘의 대학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의 대학위기를 제2의 창학계기로 삼을 때, 우리나라 대학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전하리라 믿는다. **이영호**

이영호

영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